

고대 그리스 신화의 철학의 ‘하늘’의 상징과 이미지의 변용*

장영란**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하늘의 근원적 특징과 상징과 이미지의 원리
- III. 하늘의 현상적 특징과 상징과 이미지의 표상
- IV. 하늘의 기능적 특징과 상징과 이미지의 생산
- V. 하늘의 문화적 특징과 상징과 이미지의 변용
- VI.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대 그리스신화를 중심으로 서구 문화에 나타나는 ‘하늘’의 상징과 이미지의 원형적 구조와 생산 및 변용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구 상징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독자적인 이론적 구조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간의 정신이 구조화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과 이미지의 ‘근원’적 관점, ‘현상’적 관점, ‘기능’적 관점, ‘문화’적 관점 등 네 가지 관점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인간의 정신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과 이미지의 ‘원리’, ‘표상’, ‘생산’, ‘변용’이라는 네 가지 과정을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네 가지 관점과 과정을 적용하여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하늘의 상징과 이미지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근원적 관점에서 하늘은 초월, 무한, 영원을 상징하고 형이상학적 이미지를 가진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물리적 하늘에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하늘 개념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인간에게 점차 망각되는 경향을 보이며 숨은 신의 특징을 보인다. 둘째, 현상적 관점에서 하늘은 전쟁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건국대학교

을 상징하며 파괴적이고 전투적 이미지를 표상한다. 하늘에 나타나는 비, 바람, 천둥, 번개, 벼락 등의 현상들은 인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신의 분노와 징벌의 특징을 보인다. 셋째, 기능적 관점에서 하늘은 질서와 법칙을 상징하고 정의와 조화의 이미지를 산출한다. 그것은 우주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관장하며 인간사회의 법과 도덕의 지배하는 기능을 산출한다. 넷째, 문화적 관점에서 하늘은 생식이나 창조 및 권력을 상징하며 정치적 위계질서와 계층구조 및 가부장제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변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쇠어: 하늘, 초월, 무한, 영원, 전쟁, 질서, 법칙, 정의, 창조, 권력

I. 들어가는 말

우주 한 가운데서 최초로 인간이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장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어떠한 시대적 상황이나 공간적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높은 우주 안에 하나의 티끌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파스칼은 자신을 생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 안에서 외로이 서있는 인간을 그려냈다. 이 우주 안에서 인간은 한낱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단 한 방울의 물로도 인간은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¹⁾ 원시 사회로부터 우주는 인간에게 경이로움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인간은 경험을 통해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늘과 땅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비, 바람, 천둥, 번개, 더위, 추위 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 Pascal, B., *Pansees*, translated by Rawlings B.G., Peter Pauper Press, 1900, §347-348.

인간은 단지 이 세계의 한 가운데 고독하게 존재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며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태고로부터 인간이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힘든 수많은 자연 현상들이 있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계 한 가운데 내던져 있는 존재로 누구도 다양한 삶의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이해되고 설명될 필요가 있었다.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광대한 부분은 하늘과 땅이다. 특히 하늘은 땅과 달리 매우 단순한 공간이다. 태양이나 달은 일정한 방식으로 나타나 낮과 밤의 변화를 통해 하루를 인식하게 되고, 달의 형태의 변화를 통해 한 달을 인식하게 되며, 별들의 이동을 통해 계절을 인식하게 된다. 대지가 다양하고 다채로운 존재들로 가득 차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면, 하늘은 너무나 단순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하늘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버릴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이고 위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늘은 인간의 삶의 조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신화와 상징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통해 인간이 바라본 하늘에 대한 상징적 사유와 원형적 이미지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대의 논의를 통해 상징과 이미지의 원형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기보다는 서구 정신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 문헌들을 통해 인간의 정신이 구조화되고 작동하는 원리들을 독자적으로 확립하려고 시도했다. 우선 인간 정신이 구조화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과 이미지의 ‘근원’적 특징과 ‘현상’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 및 ‘문화’적 특징 등 네 가지 관점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인간의 정신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과 이미지의 ‘원리’, ‘표상’, ‘생산’, ‘변용’이라는 네 가지 과정을 추출했다. 나아가 상징과 이미지가 인간 정신에서 구조화되는 네 가지 관점과 작동되는 네 가지 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단계를 설계하였다. 첫째, 특정한 상징과 이미지가 원형적으로 가

지는 근원적 특징들을 분석하고 주요 원리를 도출하고 둘째, 특정한 상징과 이미지가 일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적 특징들을 분석하여 가장 기본적인 표상들을 확립하고 셋째, 특정한 상징과 이미지가 활용되는 기능적 특징을 분류하여 다양한 생산의 범위를 결정하고 넷째, 특정한 상징과 이미지가 시공간에 따라 변화되는 문화적 특징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변용의 결과를 수용한다. 이와 같은 상징과 이미지에 대한 담론들을 체계화하는 방식에 따라 본 논문은 특히 서구의 네 원소들 중 하늘의 상징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하늘의 근원적 특징을 통해 상징과 이미지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하늘의 현상적 특징을 통해 상징과 이미지가 어떻게 ‘표상’되는지를 검토하고 셋째, 하늘의 기능적 특징을 통해 상징과 이미지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분석하고 넷째, 하늘의 문화적 특징을 통해 상징과 이미지가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해석할 것이다.

II. 하늘의 근원적 특징과 상징과 이미지의 원리

인간이 고대로부터 하늘에 대한 상징과 이미지를 어떻게 개념화시켰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하늘에 대해 인간들이 가지는 일차적인 이미지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상징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장 일반적 특징으로부터 ‘하늘’의 근원적인 특징들을 추론해내고자 한다. 사람들이 하늘을 보거나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초월성’의 근원이 되는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원시 시대로부터 하늘에 대해 일차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높다’는 것이다. 하늘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며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되어왔다. 하늘이 ‘높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이 살아가는 지상과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인간이 이성적으로 초월성의

개념을 정초하기 훨씬 이전부터도 하늘은 인간에게 성스러움을 의식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높다’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 신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²⁾ 하늘은 대지와와의 경계로부터 시작하여 무한히 펼쳐져 있다. 대지의 경계는 분명하지만, 하늘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인간은 자신이 지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지각할 수 없는 비물리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하늘’로 지칭해왔다.

하늘은 인간의 감각들 중 시각을 통해 지각될 수 있다. 시각은 인간이 가진 감각들 중 ‘거리’를 전제로 하는 감각이다. 만약 시각과 관련된 감각 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되어 있으면 지각할 수 없다.³⁾ 가령 우리 눈에 너무 가까이 두면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멀리 두어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하늘은 근본적으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하늘은 지나치게 멀리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을 인간은 바라볼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은 아주 불특정한 경계만을 보여줄 뿐이다. 인간이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하늘을 날 수 있고 달이나 그밖에 다른 행성까지 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 끝까지 도달하는 것은 엄밀히 경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하늘은 단지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인간의 정신이 발전하면서 하늘의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은 점차 확장된다. ‘하늘이 높다’라는 표현은 대지 위의 인간을 기준으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공간적 이미지는 ‘수직적’ 특성을 보여준다.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은 우주의 중심(omphalos)이자 축(axis)으로서 기능한다. 인간에게 하늘은 물질적 공간의 경계이지만 비물질 공간의 경계이기도 하며, 현실적 공간의 경계이지만 비현실적인 공간의 경계이기도 하다.

2) 고대 연구가들은 ‘높은’에서 하늘 신의 이름이 유래된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마오리족의 최고신 이호(Iho)는 ‘높은’을 의미하며, 아크포소족의 최고신 우월루우(Uwoluwu)도 ‘저 높은 곳’을 의미하며, 수우족이 마법적 힘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와칸(wakan)도 ‘저 높이’를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한다. Eliade, M.,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한길사, 1996, 96-97쪽.

3) Aristotle, *De Anima*, 423b20.

다음으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무한성’의 근원이 되는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하늘에 대해 사람들은 ‘넓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하늘이 넓다’는 말은 하늘의 공간적 이미지와 관련해서 ‘수평적’ 특성을 보여준다. 하늘은 한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다’고 말해진다. 그리하여 하늘의 ‘공간적’ 이미지는 무한성으로 내달리게 한다. 인간은 하늘을 어느 방향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위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인식의 한계에 맞닥트리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 확장되어가면서 무한성의 개념을 생산하게 된다. 하늘은 우리가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는 생각이 무한성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무한성은 단지 공간적 측면에서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측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간적으로 무한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무한하다고 말한다. 이때 무한성은 처음과 끝, 또는 시작과 마지막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무한성의 이미지는 시간이 가지는 무한성의 이미지로 변환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며, 또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⁴⁾ 인간이 하늘 아래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신체이다.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영혼에 의해 다른 것들과 구분된다. 인간의 영혼은 신체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을 하늘 저 멀리까지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영혼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는 모든 길을 다 밟아보아도 영혼의 한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영혼은 그토록 깊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⁵⁾ 인간은 대지 위에서 굳건히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초월성에 대해 사유하지만, 영혼의 비행을 통해 우주 한 가운데를 거닐 수 있다. 플라톤은 영혼이 땅 아래 깊숙한 곳과 하늘 위 높은 곳까지 다니며, 저속하고 하찮

4) cf. Aeschylus, fr.70.

5) cf. Diogenes Laertius, 9.7; DK 22B45.

은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⁶⁾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나 제한된 삶을 살아가지만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해 영원에 이르기까지 높아서 사물의 무한을, 사물의 과거와 미래를 보게 된다고 말한다.⁷⁾ 하늘은 수평적으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광대한 위용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늘을 통해 자아를 확장하고 우주의 무한성을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영원성’의 근원이 되는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하늘은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동일하게 존재한다. 누구나 하늘을 모든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며 모든 시간에 볼 수 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편성’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하늘이 항상 변함없이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늘이 실제로 무너져 내리거나 사라지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하늘이 언제나 저 위에 항상 그렇게 존재하고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하늘은 가시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늘 태양이 지고 달이 뜨면서 낮과 밤이 바뀌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천둥, 번개, 벼락이 치더라도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이 변화하는 것일 뿐이다. 하늘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며 항구적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제우스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로 점차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다. 오, 위대한 제우스여.”⁸⁾라고 말해진다. 제우스는 영원한 존재로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늘은 영원불변의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하늘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이면서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 대상이기도 하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하늘’(天)은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이기도 했지만 추상적인 대상이기도 하였다. 원시 시대에 하늘은 구체적으로

6) Platon, *Politeia*, 486a.

7) Epicuros, *Vaticans*. 10.

8) Pausanias, *Periegeta*, 10.12.10.

인격화되며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신으로서 숭배되었다.⁹⁾ 그것은 윤리적 사유의 원천이자 형이상학적 사유의 원천이 되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을 숭배하는 신화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유가사상이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와 형성 초기에 하늘(天)에 대해 신적 권위를 부여하여 종교적인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가 사상이 체계화되면서 하늘(天)에 대한 사고는 다양하게 변하게 된다.¹⁰⁾ 서구에서 그리스도교가 유입되었을 때 중국이나 한국 등과 같은 동아시아에서 신을 ‘천’(天)으로 이해하고 ‘천주(天主)’라 불렀던 것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결코 가까이할 수 없는 하늘의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 특성은 때로는 망각을 불러일으킨다. 하늘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거나 죽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항상 그 자리에서 있다. 하늘 신은 구체적으로 인격화되지 않으면 인간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신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일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신에게 빌어도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인간적 관점에서 신들이 인간 세계로부터 숨어버리거나 인간 세계를 떠나는 것으로 말해진다. 실제로 인간들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멀어져서 보이지 않은 신에 대해 마치 신이 스스로 이 세계에서 숨어버린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숨은 신(Deus absconditus)이나 한가한 신(Deus otiosus)라 부른다.¹¹⁾ 하늘 신은 인간과

9) 중국 고대 은나라에서는 하늘(天)은 제(帝)와 동일하게 인식되며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인격신으로 등장하며 종교적인 대상이 되었지만, 주나라에서는 하늘(天)은 추상화되면서 윤리적인 인격신으로서의 특징이 더욱 강해진다.

10) 이세현, 「고대 중국에서의 천과 인간의 만남과 그 방법」, 『유교사상문화연구』 14권, 유교사상연구원, 2000 511쪽.

11) ‘한가한’ 신은 이 세계를 창조했지만 더 이상 일상사에 개입하지 않고 물러나 있는 창조자 신을 가리킨다. 하늘 신은 많은 부족들은 창조신은 너무나 위대하여 알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계를 창조하고 다른 하위신에게 그것을 완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서아프리카의 요루바족의 올로룬, 프랑스령 콩고의 팡족의 은자메 신, 반투족의 은잠비 신 등이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안다만 제도의 하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신의 법칙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때에만 하늘 신을 찾는 경우가 생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할 때 신을 기억하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신을 망각하곤 한다. 삶에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지상에 생존하는 데 훨씬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은 자주 신을 망각하고 만다. 그래서 세계 지역 신화에서 하늘 신은 상당수가 사라지거나 태양신으로 퇴화되어 존속하였다.¹²⁾ 그렇지만 하늘 신이 종교적인 질서의 배후로 물러나 있을 때에도 하늘의 상징은 성스러움의 질서 가운데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며 초월적인 것을 계속해서 지시한다.¹³⁾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망각되지 않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늘 신은 초월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특성도 함께 발전시켰던 사실을 알 수 있다.

Ⅲ. 하늘의 현상적 특징과 상징과 이미지의 표상

원시시대부터 인류가 ‘하늘’에 대해 형성한 상징과 이미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상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현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늘에 대한 보편적인 상징과 원형적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

신 풀루가(Puluga)는 전형적인 숨은 신 또는 한가한 신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인간 형상을 하고 하늘에 살며 목소리는 천둥소리이고 호흡은 바람이다. 그는 세계를 창조하고 토모(Tomo)라는 최초의 인간을 창조했으나 점차 인간들은 창조자를 망각하자 분노하여 홍수를 일으켰다. 그렇지만 살아남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계울을 상기시키고 물러났으나 인간들은 그 후에도 신을 찾지 않았다. cf. Eliade, M., *ibid.*, 103쪽; 105-110쪽.

12)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올 때마다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같은 다른 신들에게로 떠났지만, 역사적 고난의 시대를 겪으면서 다시 야훼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신의 상징과 이미지를 가장 형이상학적으로 발전시켰다. Eliade, M.,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1983, 97쪽.

13) Eliade, M., *ibid.*, 98쪽.

다. 먼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 현상들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하늘에 나타나는 주요 대상들을 분석하면서 하늘의 신화적 특성과 이미지의 원형을 추출해보도록 하겠다. 세계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 신은 비와 바람을 지배하고 천둥, 번개, 벼락을 사용한다.¹⁴⁾ 고대인들에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의 원천이었다. 특히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인간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특징을 가졌다. 우선 인류 역사를 통해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관련하여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하늘 신이 가진 일반적인 특징들로 비, 바람, 천둥, 번개, 벼락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하늘 신들은 비와 바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천둥, 번개, 벼락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하늘의 현상은 ‘비’라고 할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적절한 비는 지상에 생명력을 일깨우고 생산력을 북돋우지만, 지나친 비는 지상에 재앙을 가져오며 파멸을 일으킨다. 비는 특히 농경민족에게 삶의 조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는 풍년을 가져오지만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이 내리거나 너무 적게 내리는 비는 흉년을 가져온다. 대지에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양육하는 것이 ‘생명의 물’이라면,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것은 ‘죽음의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제우스가 하늘 신으로서 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요 별칭으로 “구름을 모으는 자”를 의미하는 네펠레게레테스(nephelegeretes), “비의 신”을 의미하는 옴브리오스(Ombrios)나 휘에티오스(Hyetios), 혹은 “내려가는 자”를 의미하는 카타이바테스(Kataibates), “억수같이 퍼붓는 자”를 의미

14) 서양신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신화에서도 하늘 신들은 비바람 등을 몰고 다닌다. 『禮記』, 祭法 第二十三 : 山林, 川谷, 丘陵能出雲, 爲風雨, 見怪物, 皆曰神. 단군신화에도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주곡(主穀), 주명(主命), 주병(主柄), 주형(主刑), 주선악(主善惡)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들을 주재하였다고 한다.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하는 카포타스(Kappotas) 등이 있다.¹⁵⁾ 제우스 자신이 직접 비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Akrisios)는 딸 다나에가 낳은 아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 땅속에 청동 방을 만들어 다나에(Danae)를 가두었다. 그러나 제우스는 황금비의 형상으로 지붕을 통해 흘러들어와 다나에와 결합하여 페르세우스를 임신시켰다고 전해진다.¹⁶⁾

다음으로 ‘바람’도 하늘 신의 중요한 능력이다. 물론 시공간이나 속도나 온도에 따라 바람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바람은 비가 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바람에 대해 신성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는가? 고대 그리스의 펠라스고스 생성신화에는 최초의 여신 에우뤼노메(Eurynome)가 바람을 잡아 비벼 생명을 탄생시킨다.¹⁷⁾ 그것은 바람이 공기의 역동적 형태라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공기는 비가시적인 것이지만 시각 이외 청각이나 촉각 등과 다른 감각을 통해 지각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호흡과 연관하여 상징적 이미지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숨 쉬는 과정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지만 죽으면 숨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다.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 중에 죽는 전사들로부터 영혼이 빠져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¹⁸⁾

고대인들은 바람의 양면적 특성을 인식했었다. 한편으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바람’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죽음

15) Karl Kerényi, *The Gods of the Greeks*, Thames and Hudson, 1951, p.16.

16) Apollodorus, *Bibliothēke*, 2.4.1. *The Library*, Volume 1, 2; James G. Frazer,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1921.

17) 장영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어머니 신화에 나타난 철학적 세계관」, 『철학연구』 58집, 2001, 69-70쪽. 그리스의 네 가지 우주생성신화들 중에서 펠라스고스 생성신화는 단편적 형태로 존재하지만 올림포스 신화와 다른 특별한 상징과 이미지로 이루어져있다. 에우뤼노메는 공기의 역동적 형태인 바람을 비벼는 행위를 통해 강화시켜 구체적인 생명의 상징으로 ‘뱀’ 오페온(Ophion)이 탄생시킨다.

18) 그리스어의 영혼은 프쉬케(psyche)로 ‘숨 쉬다’라는 프쉬코(psycho)에서 나왔다. 그래서 영혼이 신체로부터 빠져나가거나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다.

의 바람’도 있다. 첫째, 생명의 바람은 식물들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동물들을 번식하게 할 수 있다. 오르페우스 우주생성신화에 등장하는 바람의 신은 생명력과 밀접한 연관을 보여준다. 밤의 여신 닉스(Nyx)는 검은 날개를 가진 새였다.¹⁹⁾ 고대의 밤의 여신은 바람의 신을 임신했고, 암흑의 신의 거대한 무릎 안에 은빛 알을 낳았다.²⁰⁾ 바로 이 은빛 알로부터 금빛 날개가 달린 세찬 바람의 신의 아들 에로스(Eros)가 태어났다. 이것은 우주의 만물을 결합시켜 생성시키는 사랑의 신 에로스의 기원이 바람의 신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공기의 변형인 바람은 생명력의 강화된 형태로 이해되었다. 그리스신화에서 바람이 가진 강력한 생명력의 이미지는 아버지 없이 나온 자식을 ‘바람의 자식’이라 부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헤라가 제우스와 결합하지 않고 낳은 헤파이스토스를 바람의 자식이라 불렀다.²¹⁾

고대 그리스의 경우는 강력한 폭풍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 현상에 대한 힘을 보여주는 하늘 신 이야기는 별로 없다. 그리스의 하늘 신인 제우스는 주로 비의 신 또는 비바람의 신으로 등장하며 바람의 신으로서의 독자적인 역할이나 기능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리스 신화에는 하늘 신과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바람의 신들이 존재한다. 헤시오도스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Zephyros)와 북풍의 신 보레아스(Boreas)와 남풍의 신 노토스(Notos)만을 언급하고 나머지 동풍의 신에 대해서는 “밝음을 가져다주는 자”라는 별칭을 가진 아르게스테스(Argestes)라고 말한다. 헤시오도스는 이 바람들은 신들에게서 태어나 인간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다른 바람들은 아무렇게 불어대다가 때로는 인간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다고 한다.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거나 대지에 태풍이 불고 지나가 폐

19) Aristophanes, *Aves*, 695.

20) *Orphei Hymni*, 70.2.

21)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헤라가 처녀생식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이야기도 현존한다. cf. Homeros, *Ilias*, 18.395; Hesiodos, *Theogonia*, 928; Ovidius, *Fasti*, 5. 299.

허가 되는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다.²²⁾ 그러나 남성성을 가진 네 종류의 바람의 신들 이외에 다른 여성성을 가진 바람의 신들이 있는데 하르피이아이(Harpyiai)라 불린다. 이들은 폭풍과 같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²³⁾ 그리스인들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특성을 가진 바람의 종류에 여성성을 부여하였다. 그렇지만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는 바람과 관련된 하늘 신이 최고신의 역할을 맡는다. 최초의 아버지 신인 압수가 자식들에 의해 살해된 후 괴물로 변신한 어머니 신 티아마트는 자식들과 전쟁을 벌인다. 그러나 마르둑(Marduk)이 티아마트에게 회오리바람을 불어넣어 화살을 쏘아 배를 찢어지게 하고 심장을 조각낸 후에 티아마트의 몸을 갈라 우주를 창조하였다.²⁴⁾ 바빌로니아의 폭풍의 신 마르둑이 어머니여신의 몸을 기반으로 우주의 창조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의 하늘 신의 역할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늘 신은 대부분 천둥, 번개, 벼락 등과 같은 유사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두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하늘 신의 능력이라 생각되었다. 고대인들은 ‘천둥’을 신의 목소리로 생각하였는데 황소소리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²⁵⁾ 그리스 신화에는 하늘 신 제우스가 에우로페(Europe)를 유혹하려 할 때 세 가지 색을 가진 황소로 변신하여 나타난다.²⁶⁾ 북유럽의 토르(Thor)는 천둥의 신으로 망치를 들고 있으며 인도의 인드라(Indra)도 천둥을 치며 번개를 들고 있다. 특히 번개와 벼락은 지상에 떨어지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의 분노로

22) Hesiodos, *Theogonia*. 869ff.

23) Harrison, J. E., *Prolegomena to the Study of Greek Relig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2, p.176.

24) *Enuma Elish*, IV, 93ff. 에누마 엘리쉬에 나오는 마르둑(Marduk)과 티아마트(Tiamat)의 전쟁 이야기에 대한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장영란, 「고대의 위대한 어머니여신의 변형의 논리와 철학적 상상력비판」, 『서양고전학회』 18권, 서양고전학회, 2002, 34-40쪽 참조.

25)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식용 악기 ‘황소 소리’(bull-roarer)는 길이 15센티, 폭3센티의 나뭇조각으로 한쪽 끝에 구멍을 뚫고 줄을 꿰어 회전시키면 천둥소리나 황소의 으르렁 소리가 나타난다.

26) Karl Kerényi, *The Gods of the Greeks*, Thames and Hudson, 1951, p.109.

생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늘 신이 지상에 현현한 것이기 때문에 벼락이 떨어진 장소는 성스러운 곳이 되고, 벼락 맞은 돌이나 나무 및 인간 등은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 세계 신화에서 하늘 신의 신성한 나무는 종종 참나무로 여겨진다. 그것은 예로부터 참나무가 벼락을 자주 맞는 신성한 나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²⁷⁾ 그 밖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도 신성한 돌도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인간의 삶의 조건을 뒤흔들어버릴 정도로 강력하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비바람을 동반하는 천둥, 번개, 벼락은 인간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 우리는 때로는 태풍이나 폭풍, 그리고 홍수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나 파괴된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위력을 실감한다. 대부분의 고대 종교에서 하늘 신 또는 하늘 관련 신들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전쟁’의 신으로 등장한다. 그것은 하늘의 현상들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는 우주의 최고권을 차지하기 위한 신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은 티탄족과의 전쟁과 거인족과의 전쟁, 그리고 튀폰과의 전쟁 등 세 번의 전쟁을 치른 후에야 우주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다. 하늘 신으로서 제우스의 일차적인 이미지는 전쟁의 신이다. 그는 아말테이아의 가슴으로 만든 무적의 방패 아이기스(aegis)의 주인이다. 제우스가 올림포스 최고신으로 등극한 후에는 실질적인 전쟁의 신은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온 아테나(Athena)가 되지만 헤라가 낳은 아레스(Ares)도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과 관련되어 전쟁의 신의 역할을 한다. 하늘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현상은 하늘 신의 일차적인 능력을 전쟁의 신으로 특징짓는다. 그리스의 제우스와 비슷하게 전쟁의 신의 특징을 나타내는 다른 지역 신화의 하늘 신들로 북유럽의 토르(Thor), 게르만족의 오딘(Odin), 또는 보덴(Woden), 이스라엘의 야훼(Jaweh), 인도의 인드라(Indra), 로마의 주피터(Jupiter)등이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27) 그리스 도도나의 제우스의 나무, 로마 주피터의 나무, 도나르의 참나무, 프러시아의 로모베에 있는 참나무 등이 신성한 나무로 숭배되고 있다. Eliade, M., *ibid.*, 115쪽.

IV. 하늘의 기능적 특징과 상징과 이미지의 생산

고대 신화나 종교에 나타나는 하늘의 기능적 특징들은 현대적 개념으로 ‘전지’와 ‘입법’ 및 ‘정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었다. 인간은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하늘은 인간을 내려다본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래 감추진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헤시오도스는 제우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제우스의 눈”이라 말한다.²⁸⁾ 그리스신화에서 기후의 신 제우스는 아테나를 임신한 메티스가 삼켜버린다. 그것은 ‘지혜’를 의미하는 메티스(Metis)가 낳을 아이가 제우스의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신탁 때문이었다.²⁹⁾ 그렇지만 그 후로 제우스의 몸속에서 메티스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제우스의 지혜에 대한 또 다른 원천을 제공한다.

더욱이 하늘에는 태양, 달, 별 등이 존재한다. 세계 지역 신화에서는 상당수가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이나 달 또는 별들이 하늘 신의 자식들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양과 달은 하늘에서 빛나는 두 개의 빛으로 남매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쌍둥이 남매로 설정되는 것도 하늘에서 서로 교대로 낮과 밤에 빛을 내기 때문에 서로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헬리오스(Helios)와 셀레네(Selene), 또는 아폴론(Apollon)과 아르테미스(Artemis)는 형제로 등장한다. 특히 태양신은 본질적으로 ‘빛’의 측면 때문에 삶의 주요 상징이 된다. 태양과 달은 하늘 신의 두 개의 눈이라고 한다.³⁰⁾ 대다수의 고대 종교에서는 하늘 신의 기

28) Hesiodos, *Theogonia*, 267.

29) Hesiodos, *ibid.*, 891-900.

30) 인도의 바루나(Varuna)는 ‘천개의 눈을 가진’자라고 말한다. 수많은 별들이 가진 하늘 신은 모든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란의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도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그는 많이 보는 자, 오류가 없는 자, 속일 수 없는 자, 먼 것을 가장 잘 보는 자, 가장 잘 알고 있는 자 등을 불린다. Eliade, M., *ibid.*, 139쪽.

능이 점차 퇴화하면서 태양신이 실질적으로 지혜나 학문을 관장하는 신이 된다. 그러나 하늘 신은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하늘 신은 우주의 자연 ‘질서’와 ‘법칙’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법’과 ‘도덕’의 지배자의 기능을 한다. 인간은 처음에 단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초월적이고 무한한 힘을 직관하게 되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³¹⁾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을 일상적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게 되고 우주가 일정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고대인들은 우주 변화의 질서와 법칙을 신법이나 자연법으로 지칭하고 지상에 만든 것이 인간 법이나 국가법이라 부른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올림포스 이전의 위대한 여신들과 결합하여 가부장제 신화를 확립한다. 여기서 ‘결혼’의 코드는 제우스가 기존의 여신들의 주요 기능들을 흡수하고 통합하여 가장 강력한 최고의 신이 되는 데 주요역할을 한다. 핀다로스(Pindaros)는 제우스가 수많은 여신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합하는 여신을 테미스(Themis)라 한다.³²⁾ 그녀는 운명의 여신들 모이라(Moira)들이 올림포스로 가는 제우스에게 데려온 여신이기 때문이다.

테미스는 우주 자연의 질서와 법칙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질서와 법칙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신들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한다.³³⁾ 그러므로 제우스는 우주와 인간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테미스와의 결합을

31)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의 특성상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불확실성과 신의 초월성뿐만 아니라 인식의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의 신성한 가치를 알게 해준다.”cf. Eliade, M., *ibid.*, 120쪽.

32) Pindaros, fr.10. cf. Karl Kerényi, *The Gods of the Greeks*, Thames and Hudson, 1951, p.102. 그러나 이것은 시인들이 제우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헤시오도스는 테미스가 아니라 메티스(Metis)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말한다. 말하자면 테미스를 선택한 경우는 법과 관습을 더 중시한 것이고, 메티스를 선택한 경우는 지혜나 사리분별을 더 중시한 것이라 보면 된다.

33) Homeros, *Odyseia*, 2,68; *Ilias*, 20.4-6; *Ilias*, 15, 87-95. cf. Harrison, J.E., *Themis*, with Gilbert Murray & Cornford, F.M.,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12, p.482.

통해 주요 기능을 흡수하여 하늘의 질서와 법칙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신이 된다. 테미스가 제우스와 결합하여 낳은 자식들은 호라이(Horai)라 불리는 계절의 신으로 ‘시간(hora)의 변화와 관련된다. 호라이는 좋은 법을 의미하는 ‘에우노메’(Eunome)와 적절한 때(정의)를 가리키는 ‘디케’(Dike),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Eirene)이다. 테미스는 근본적으로 우주 자연의 질서와 법칙과 관련되므로 그녀의 세 명의 자식들은 좋은 법에 맞춰 적절하게 일하면 평화가 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제우스는 테미스를 대신하여 우주의 정의를 구현하는 자로서 법과 도덕의 제정자로 등장한다. 그리하여 하늘 신은 영원불변하는 우주의 질서와 법칙의 형이상학적 주체로 발전된다.³⁴⁾

하늘 신은 인간의 삶의 조건을 뒤흔들어버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신화에 등장하는 홍수 이야기의 주체는 하늘 신이다. 그렇지만 하늘 신을 분노하게 만들어 홍수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 제공자는 인간이다. 근본적으로 고대인들은 신법이나 자연법에 상응하여 인간의 법이나 국가의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지상에서 인간이 국가 공동체의 법을 위반하면 우주 자연의 법이 파괴되어 홍수나 가뭄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홍수 신화들 중 가장 유명한 데우칼리온(Deukalion)의 신화는 홍수가 끝난 후 제우스에게 희생제의를 바친다. 이것은 바로 제우스가 홍수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다.³⁵⁾ 현존하는 데우칼리온의 홍수신화는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성격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제우스가 지상에 홍수를 보낸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남아 있지 않다. 그렇지만

34) 엘리아데에 따르면 하늘 신은 “우주의 기초가 되며 자연 순환의 주체 및 지배자가 되며, 우주의 원리 혹은 우주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일치하거나 법칙, 즉 신들 자신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이나 일시적 현상 및 생성중의 현상에 있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과 일치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Eliade, M. *ibid.*, 120쪽.

35) Apollodoros, *BiBliotheke*, 1.7.2. “데우칼리온은 궤짝을 타고 구일 밤 구일 낮 동안 바다 건너 파르나소스에 닿게 된다. 거기서 비가 그치자, 궤짝에서 나와 제우스 뮈크시오스(Zeus phyksios)에게 제사를 드렸다”

로마 시대로 가면 윤리적 특성이 강화되면서 오비디우스(Ovidius)는 노부부 필레몬(Philemon)과 바우키스(Bauchis)의 이야기를 통해 손님들에게 불경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홍수를 통해 징벌을 내리는 환대의 신으로서의 제우스 또는 유피테르의 모습을 보여준다.³⁶⁾

하늘은 인간과 동떨어진 존재로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누구에게나 공평한 존재로 인식된다. 하늘 신은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법과 관습을 수호하기도 한다. 제우스는 폭행을 일삼거나 사악하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린다. 단 한 명의 나쁜 사람 때문에 온 도시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³⁷⁾ 하늘에서 내리는 벌은 인간의 생존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근과 역병과 불모 등이다. 헤시오도스는 인간이 제우스의 눈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제우스는 자신의 감시자들을 통해 인간들을 감시한다. 그는 정의의 여신(Dike)을 옆에 두고 정의를 위반하고 모독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³⁸⁾ 나아가 제우스는 정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지만 부정의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헤시오도스는 정의(dikes)에 귀 기울이고 폭력(bies)을 전적으로 잊어버리라고 한다.³⁹⁾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판하는 정의의 원리를 산출한다.

V. 하늘의 문화적 특징과 상징과 이미지의 변용

고대인들은 하늘이 모든 것을 ‘생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은 그 자체로 다산과 풍요와 직접적 관련이 있지는 않다. 그렇지

36) Ovidius, *Metamorphoses*, 8.618ff. 제우스는 환대의 신이다. 이미 고대 그리스로부터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제우스의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37) Hesiodos, *Theogonia*, 238-241.

38) Hesiodos, *ibid.*, 248-262.

39) Hesiodos, *ibid.*, 275.

만 하늘 신은 모든 것의 원천이 된다. 하늘 신은 대부분 여성적 이미지가 아닌 남성적 이미지를 차용한다. 고대에는 하늘의 거칠고 공격적인 이미지는 남성적 이미지로 표상되고 땅의 부드럽고 수용적인 이미지는 여성적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은 땅으로부터 나온다. 헤시오도스의 우주생성신화에서 우라노스는 가이아로부터 나오지만 가이아와 결합하여 자식들을 낳는 가부장신이 된다. 고대인들에게 하늘과 땅은 하나였다가 둘로 분리된 존재이다. 그래서 그들은 상호적 관계에 있다. 하늘의 변화에 상응하여 땅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천체의 운행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계절이 변화하고 대지에도 식물이 싹이 터서 자라다 열매를 맺고 죽어가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은 농경 생활을 하면서 특히 하늘의 남성적 이미지와 땅의 여성적 이미지를 유비적으로 사용하였다. 농경문화에서 하늘은 땅의 배우자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바람, 그리고 태양빛에 의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자라난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하늘 신은 생산의 신으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그리스신화의 우라노스(Ouranos)는 예외적으로 ‘위험한 다산성’을 가지고 있다.⁴⁰⁾ 다른 지역의 신들과 달리 우라노스는 가이아와 결합하여 괴물들을 낳는다. 그들은 백 개의 팔을 가진 헤카톤케이레스(Hekatoncheires), 한 개의 눈을 가진 키클로페스(Kyklopes) 등이다.⁴¹⁾ 그러나 우라노스의 위험한 다산성은 크로노스에 의해 거세되고 크로노스가 계승한 최고권은 다시 올림포스의 제우스가 차지하게 된다. 제우스는 비바람을 관장하는 생식신으로서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다산과 풍요를 가져오는 하늘 신의 특징은 제우스가 수많은 여신들이나 여인들과 결합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고신이며 가부장신으로서의 제우스의 지상권과 그리스의 민족 신화와 건국신화의 토대가 된다.⁴²⁾

40) 엘리아데는 우라노스가 다른 하늘 신들과 달리 첫째 괴물을 낳는다는 점과, 둘째 자기가 생산한 것에 대해 증오심을 갖는 것이 독특하다고 말한다. Eliade, M., *ibid.*, 142-3쪽.

41) Hesiodos, *ibid.*, 139-156.

42) 제우스의 다양한 결합과 생산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장영란, 『신화속의

생식신로서 제우스는 다양한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등장하지만 특히 ‘황소’의 모습은 인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도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⁴³⁾ 제우스는 에우로페(Europe)를 태우고 크레테로 건너가기 전에 세 가지 색깔의 황소로 변신하여 접근하였다. 또한 제우스와 결합하는 여신이나 여인은 ‘암소’의 형상으로 등장하기로 한다. 제우스의 공식적인 아내인 헤라는 ‘암소 눈의’라는 별칭을 달고 다녔고, 이오는 제우스에 의해 암소로 변하여 고난을 당했다. 특히 황소의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초승달 모양의 뿔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다산과 풍요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청각적으로 천둥소리를 모방하는 듯한 울음소리로 자주 하늘 신의 상징으로 차용된다.

나아가 하늘 신은 가부장제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특화되는 경우가 많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하늘 신인 제우스를 아버지(Pater)에 비유한 것은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지에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우스는 우주 ‘생성’ 신화에서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고대 신화와 종교에서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위대한 어머니 여신이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또는 대지의 어머니 여신의 배우자로서 하늘 신이 생식신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가부장제 사회와 비슷하게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식을 ‘낳는’ 것은 아버지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자식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태어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의학에 따르면 어머니는 단지 자식을 형식적으로 낳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아버지가 자식을 실질적으로 낳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⁴⁴⁾ 그

여성, 여성속의 신화』, 문예, 2001, 251-257쪽.

43) 다른 지역에 나타난 황소의 형상을 가진 신들로는 인도의 인드라(Indra), 페니키아의 엘(El), 우가리트의 바알(Baal)-하다드(Hadad), 앗시리아의 벨(Bel), 이집트의 민(Min)/암몬(Ammon), 우르의 나나르(Nanar) 등이 있다.

44) 고대 그리스의학의 전생설(preformationism)에 따르면 정자 속에 이미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어 단순히 자라기만 하면 되는 아주 작은 인간(homunculus)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전쟁설을 비판하여 아버지는 자식에게 형상인의 기능을 하고 어머니는 질료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발전시켰다. cf. Aristotle, *Generation of Animals*, 729a10-11;

러나 이와 달리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야훼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우주를 생성하는 방식이 아닌 ‘창조’하는 방식에서 유래된다고 볼 수 있다.⁴⁵⁾ 즉 야훼신은 우주의 창조자로 인간의 아버지라 불리는 것이다. 사실 그리스 철학에서도 제작자의 이미지로 등장하지만 특별히 하늘 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플라톤은 제우스와는 다른 독자적인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어로 ‘제작자’를 의미하는 데미우르고스(Demiourgos)를 설정한다. 이 우주는 데미우르고스가 언제나 같은 상태로 있는 이데아(idea)를 ‘본’(paradeigma)으로 삼아 만든 것이다.⁴⁶⁾ 플라톤은 우주를 만든 자를 ‘아버지’(pater)라고 부른다.⁴⁷⁾ 이러한 방식으로 하늘 신은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거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궁극적 원인으로서 아버지라 불린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삶에 미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 강력한 ‘힘’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이것들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하늘을 생각하게 만든다. 하늘을 숭배하는 민족들은 하늘 자체를 신으로 삼거나 또는 하늘과 관련된 현상들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특성을 신격화한다. 세계 지역 신화에서 하늘을 중심으로 숭배하는 민족들은 대부분 최고신의 지위를 하늘 신에게 부여한다. 하늘 신은 지상권을 가지고 우주의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은 수메르어로 딩기르(dingir)라 하며 하늘을 가리키는 명칭은 아누(Anu)라 불렸다. 하늘 신 아누는 바빌로니아의 최고신이었지만 점차 추상화되고 잊혀지고 마르

그리스 비극의 어머니살해의 주제와 관련하여 고대 그리스사회의 철학적 입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장영란, 『신화속의 여성, 여성속의 신화』, 문예, 2001, 145-154쪽.

45) *Genesis* 1:1-31. 기존의 그리스신화나 이집트 신화 등이 마치 물레 위에 진흙을 빚듯이 무언가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으로 설명하나, 이스라엘의 야훼신은 우주를 ‘말’(logos)을 통해 만든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46) Platon, *Timaeos*, 28a.

47) Platon, *ibid.*, 28c, 37c, 41a.

дук(Marduk)이 영웅신으로 우주를 제작한다.⁴⁸⁾ 고대 그리스의 최고신은 가이아 이후에 우라노스(Ouranos)에서 크로노스(Kronos)를 거쳐 제우스(Zeus)로 변천한다.⁴⁹⁾

제우스는 초기에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비바람을 관장하며 ‘천둥’, ‘번개’, ‘벼락’을 무기로 사용하는 기후의 신이었다. 그리스 서사시에 제우스는 티탄족 전쟁 이후에 포세이돈과 하데스와 더불어 제비뽑기를 하여 하늘을 자신의 몫으로 삼는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포세이돈은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다른 신들에게 트로이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제우스에 대해 불평한다. 왜냐하면 크로노스의 세 아들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하늘과 바다, 그리고 지하세계를 각자의 고유한 영역으로 배분받았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제우스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⁵⁰⁾ 이것은 제우스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처음에는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가 점차 제우스가 최고신의 지위를 가지게 된 사실을 알려준다. 여기서 제우스는 “모든 신들과 모든 인간들을 넘어서는 존재”라고 말해지며,⁵¹⁾ 단지 하늘 신으로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 세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지배권을 가진 신으로 등장한다.

호메로스는 이미 하늘의 제우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지하의 제우스(Zeus katachthonio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⁵²⁾ 파우사니아스도 제우스가 하늘을 지배하고 지하세계도 지배한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제우스는 하늘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땅과 바

48) *Enuma Elish*, IV.128-140. Pritchard, J.B.(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Princeton University, 1955.

49) 그리스어로 우라노스(Ouranos)는 ‘하늘’을 의미한다. 크로노스(Kronos)는 본래 ‘무리하다’는 의미를 가졌으나 후대에 크호로노스(Chronos)와 혼용되면서 시간의 신으로 이해되지만 직접적으로 하늘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제우스(Zeus)의 경우에는 디오스(Dios)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div와 유사하게 낮을 의미하며 밝게 빛나는 하늘을 간접적으로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50) Homeros, *Ilias*, 15.185ff.

51) Homeros, *ibid.*, 8.18-27.

52) Homeros, *ibid.*, 9.457. “그래서 신들도 그분의 저주를 이루어 주셨소. 지하의 제우스와 무서운 페르세포네(Persephoneia)께서 말이오.”

다까지도 지배하는 신으로 등장하며, 때로는 바다의 포세이돈과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와 동일화된다.⁵³⁾ 이제 제우스는 단지 자신의 고유한 몫을 가진 다양한 신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스킬로스는 “제우스는 모든 것이고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다.”라고 말한다.⁵⁴⁾ 오르페우스 종교도 제우스를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설명한다. 그들은 “제우스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⁵⁵⁾ 더욱이 플라톤은 오르페우스 종교를 인용하면서 최고신으로서의 “제우스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과 중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⁵⁶⁾ 제우스는 처음에는 올림포스 신들 중의 하나였지만 나중에 올림포스 신들 중 최고신이 되고 결국 다른 신들을 훨씬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신으로 이해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⁵⁷⁾

나아가 하늘 신은 최고신으로서 왕이라 불린다. 그리스의 제우스는 “왕들 중의 왕이며, 축복받은 자들 중의 축복받은 자이고, 완전한 자들 중의 가장 완전한 힘”이라고 말해진다.⁵⁸⁾ 그는 우주의 지배자로서 자신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지상의 대리자를 통해 통치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 사회의 왕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트로이 전쟁에서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은 제우스로부터 왕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⁵⁹⁾ 제우스는 최고권의

53) 쿡(Cook)은 하늘 신, 바다 신, 땅의 신으로서의 제우스의 세 측면을 이에 상응하는 하늘 여신 디아(Dia), 바다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 땅의 여신 디오네(Dione)와 연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cf. Arthur Bernard Cook, “Zeus, Jupiter and the Oak”, *The Classical Review*, Vol. 17, No. 3, 1903, p.177ff.

54) Aeschylus, fr.70.

55) *The Orphic Hymns*, 15.

56) Platon, *Nomoi*, 4.715e; DK1 B6.

57) 고대 그리스에서 제우스의 위상 변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장영란, 『장영란의 그리스신화』, 살림, 2005, 231-137쪽.

58) Aeschylus, *Hiketides*, 524-526. ἀναξ, ἀνάκτων, μακάρων μακάριαιτε καὶ τελέων τελεϊότατον κράτος, ὄλβιε Ζεῦ,...

59) Homeros, *ibid.*, 2.101-8. 호메로스는 아가멤논의 왕호를 헤카이스토스가 만든 것으로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통해 뤼케네의 시조 펠롭스(Pelops)에게 준 이후로 아트레우스(Atreus)에서 아가멤논(Agamemnon)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한다.

상징이며 인간 왕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이미 왕권신수설의 기원이 되는 신화적 원형을 엿볼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오케아노스의 딸 스틱스(Styx)의 자식들인 ‘힘’을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와 ‘폭력’을 의미하는 비아(Bia)가 항상 제우스 곁에서 수행하였다는 이야기이다.⁶⁰⁾ 스틱스는 신들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대상으로 전율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힘의 측면으로 금기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⁶¹⁾

제우스는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에서 가부장제의 전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진다. 그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결혼’이라는 코드를 통해 기존의 여신들이 가진 중요한 기능들을 흡수 및 통합하여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최고신으로의 기능과 위상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헤라나 아프로디테와 같은 올림포스의 여신들은 대부분 자신의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축소되었다 더욱이 제우스는 극단적으로 여신이 가진 생식 능력마저도 박탈하거나 약화시키는 이야기의 주체이기도 하다. 가령 제우스는 임신한 메티스 여신을 삼켜 아테나를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여 아테나가 자신에게 “어머니가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어머니를 살해한 오레스테스를 편들어 “진심으로 남성편이며, 전적으로 아버지편”이라고 말하게 만들었다.⁶²⁾ 또한 하늘 신으로서의 제우스가 변신하지 않고 본래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결국 벼락 맞아 죽은 세멜레(Semele)의 몸에서 디오니소스를 꺼내 자신의 허벅지에서 탄생시켰다.

60) 크라토스와 비아는 오케아노스의 딸 스틱스(Styx)의 자식들로 제우스가 티탄족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도와 싸우는 신들에게 특권과 명예를 누리게 하리라고 선포하였을 때 스틱스는 가장 먼저 자식들을 데리고 올림포스로 갔다. 제우스는 스틱스를 신들의 위대한 맹세가 되게 해주고 그녀의 자식들을 자신과 항상 함께 살게 하였다. Hesiodos, *Theogonia*, 385ff.

61) cf. Conford, F.M.,(1912), *From Religion to Philosophy: A Study in the Origins of Western Speculation*, 『종교에서 철학으로』, 남경희 역, 이화여대출판부, 1995, 30쪽.

62) Aeschylus, *Eumenides*, 734-740.

VI. 맺음말

하늘에 대한 인간의 이미지는 인류 역사들 통해 가장 형이상학적 상징 체계로 발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하늘의 상징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근원적 관점에서 하늘은 초월, 무한, 영원을 상징하고 형이상학적 이미지를 표상한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물리적 하늘에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하늘로 발전되어 가면서 인간에게 점차 망각되는 경향으로 인해 숨은 신의 특징을 보인다. 하늘은 인간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신의 법칙을 변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종교적 숭배가 되지 않게 된다. 둘째, 현상적 관점에서 전쟁을 상징하며 파괴적이고 전투적 이미지를 표상한다. 하늘에 나타나는 비, 바람, 천둥, 번개, 벼락 등의 현상들은 인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신의 분노와 징벌의 특징을 보인다. 고대 종교에서 대부분의 하늘 신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전쟁의 신으로 등장한다. 셋째, 기능적 관점에서 하늘은 질서와 법칙을 상징하고 정의와 조화의 이미지를 산출한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분명한 윤리적 계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나 로마와 같은 다른 지역 신화에서는 윤리적 계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우주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관장하며 인간사회의 법과 도덕을 지배하는 기능을 산출한다. 넷째, 문화적 관점에서 하늘은 생식이나 창조 및 권력을 상징하며 정치적 위계질서와 계층구조 및 가부장제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변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 신은 대지의 여신의 배우자로 생식신으로서 등장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창조신으로 등장한다. 또한 인간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비바람의 신으로서 하늘 신은 최고의 지상권을 보여주며 우주의 위계질서와 국가의 계층구조를 확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참고문헌

- 김인곤 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선집』, 아카넷, 2005.
- 장영란, 『장영란의 그리스신화』, 살림, 2005.
- _____,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 2003.
- _____, 「고대 그리스 신화의 물의 상징과 이미지의 변용」,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학회, 2013, 36-55쪽
- _____, 「고대 그리스의 죽음과 영혼의 제의의 철학적 의미」,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 31집, 2014, 5-24쪽
- Aeschylus, *Agamemnon, Libation-Bearers, Eumenides, Fragments*, trans. by Herbert Weir Smyth,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_____, *Suppliant Maidens, Persians, Prometheus, Seven Against Thebes*, trans. by Herbert Weir Smyth,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Anne Baring & Jules Cashford, *The Myth of the Goddess: Evolution of an Image*, Arkana, Penguin Books, 1991.
- Apollodorus, *Bibliothèque, The Library*, Volume 1, 2, James G. Frazer,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1921.
- Aristotle(1907), *Aristotle De Anima*, by R.D. Hic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36), *Aristotle On the Soul*,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ford, F.M.,(1912), *From Religion to Philosophy: A Study in the Origins of Western Speculation*, 『종교에서 철학으로』, 남경희 역, 이화여대출판부, 1995.
- Cook, A.B., “Zeus, Jupiter and the Oak”, *The Classical Review*, Vol. 17, No. 3, 1903.
- Diels, H. & W. Kranz (= [DK]),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Weidmann, 1952.
- Diogenes Laertius,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tr. by Hicks, R.D.,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25.
- Eliade, M.,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한길사, 1996.
- _____,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1983.
- Harrison, J. E., *Prolegomena to the Study of Greek Relig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2.

- _____, *Themis*, with Gilbert Murray & Cornford, F.M.,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12.
- Hesiod, *Theogony*, edited with Prolegomena and Commentary by M.L. West, Clarendon Press, 1966.
- _____, *Works and Days*, edited with Prolegomena and Commentary by M.L. West, Clarendon Press, 1978.
- Homer, *Ilias*, A.T. Murray, Loeb Classical Library, 1971.
- _____, *Odysseia*, A.T. Murray, Loeb Classical Library, 1966.
- _____, *Homeric Hymns, Homeric Apocrypha, Lives of Homer*, M.L. West, Loeb Classical Library, 2003.
- _____, 『오뒤세이아』, 천병희 역,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 _____, 『일리아스』, 천병희 역,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 Karl Kerényi, *The Gods of the Greeks*, Thames and Hudson, 1951.
- _____, *The Heroes of The Greeks*, Thames and Hudson, 1959.
- Olga A. Zolotnikova, *Zeus in Early Greek Mythology and Religion*, Archaeopress, 2013.
- Ovidius, *Metamorphoses*, 『원전으로 읽는 변신이야기』, 천병희 역, 숲, 2005.
- Pausanias, *Discription of Greece*, tr. W.H.S. Jon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18.
- Platon, *The Republic*, trans. by Shorey, Paul,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_____, *Politeia*, 『국가』, 박종현 역, 서광사, 1997.
- _____, *Euthyphro, Apology, Crito, Phaedo, Phaedrus*, trans. by Fowler, H.N.,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Plato's Phaedrus*, Hackforth, R(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 _____, *Laws*, trans. by Bury, R.G.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26.
- _____, *Nomoi*, 『법률』, 박종현 역, 서광사, 2009.
- Pritchard, J.B.(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Princeton University, 1955.
- Vernant, J.P., *Mythe & pensee chez les Grecs, Myth and Thought among the Greeks*,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사유』, 박희영 역, 아카넷, 2005.
- William Allan, "Divine Justice and Cosmic Order in Early Greek Epic",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Vol. 126, 2006.

The Symbols and Transformation of the Images of Sky in Greek Mythology

Chang, Young-Ran

This treatise is aimed to consider the archetypal structure, reproduction and transformation relating to symbol and image of the sky in Greek mythology as the origin of the Western spirit. Above all for explaining Western symbol syst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ts own theoretical structure. I have derived the point of “fundamental”, the point of “phenomenon”, the point of “function”, and the point of “culture” in order to explain how the human spirit is structured. And then I have extracted four processes of “principle”, “representation”, “reproduction” and “transformation” from material symbol and image for explaining how to operate within the human spirit. In this paper, I have argued about the symbol and image of sky in Greek myth and culture. First, the sky is a symbol of transcendence, infinity, eternity, and has the metaphysical image and principle. The more it is developed from concrete and physical sky to metaphysical sky, the more it is forgotten from human and called it ‘the hidden god’(Deus absconditus). Second, the sky is a symbol of the war from the phenomenal point of view, and represents the destructive and aggressive image. Third, the sky is a symbol of the law and order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and produces an image of justice and harmony. It also is derived from function that takes charge of cosmic law and rules over the law and custom in human society. Fourth, the sky is a symbol of the procreation or the creation, and the power from the cultural point of view, and transforms into an image of the hierarchy and the image of the patriarchal ‘father.’

key Word: sky, transcendence, infinity, eternity, war, justice, creation, power

투고일 : 2014.04.25 / 심사일 : 2014.05.30 / 심사완료일 : 2014.06.10